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1)

북클럽 팀명	책담구대					
일시/장소	일시	10월 15일 수요일, 18:00~ 20:00			장소	씨스퀘어 Tangerine Orange 룸
참여 인원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김*희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정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빈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박*빈 (서명)	
도서	도서명	작별하지 않는다			저자	한강
	출판사	문학동네	출판연도	2021.09.09	번역자	
오늘의 북클럽 주제	소설 속으로 들어가 생각 나누기					
활동 내용 & 방법						
<p>소설은 얼마나 현실과 닮아있을까. 역사를 다룬 책이니만큼, 소설에서 현실을 발견하고 생각을 나눠보자는 의미로 주제를 정했다. 우선 책에 대한 파악을 하기로 했다. 소설이니만큼, 소설이 가지는 특징을 생각해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 책의 첫인상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주제로 생각을 나눴다. 해당 파일은 실제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조금 더 다듬어 작성하였다.</p> <p><b>* 책의 첫인상에 대해 말해주세요!</b></p> <p>*희: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차가운 겉표지로 인해서 안의 내용도 어두운 내용일 거라 예상했다. 작별이란 키워드는 이별과도 같은 슬픔을 담고 있기에, 이 책은 무엇과 작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더불어 들었던 것 같다.</p> <p>*정: 책 표지 속 많은 발자국들이 있지만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제주 바다에서 모순적으로 고요함이 느껴졌다.</p> <p>*빈: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표지를 대충 봐서 바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거대한 얼음 장벽이라고 느꼈다. 책 내용 또한 차가운 느낌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p> <p><b>*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장면과 이유를 말해주세요!</b></p> <p>*희: 40p. “이제부터 중요한 건 피가 멈추지 않게 하는 거야. 봉합 부위에 딱지가 앉으면 안 된다. 계속 피가 흐르고 내가 통증을 느껴야 한대. 안 그러면 잘린 신경 위쪽이 죽어버린다고 했어” -&gt; 고통을 느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인선의 사고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4.3 사건과 같이 잊으면 안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서라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짚어주는 것 같았다. 아픔을 더이상 느끼지 못하고 포기하면 신경이 죽는 손가락처럼 4.3 사건도</p>						

아픔으로 인해 기억을 포기한다면 결국 손가락처럼 무뎠어지고 말 것이다.

\*정: 12p. 물에 잠긴 무덤들과 침묵하는 묘비들로 이뤄진 그곳이, 앞으로 남겨질 내 삶을 당겨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을.

-> 비극이 일어났던 현장을 물에 잠긴 무덤이라고 비유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누군가에겐 밥벌이이자 삶의 터전인, 그 바다를 죽은 사람들에게겐 희생으로, 또 남겨진 사람들에게겐 트라우마의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암울했다. 비록 그 흔적들은 썰물에 쓸려 찾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빈: 105p. 인내와 체념, 슬픔과 불완전한 화해, 강인함과 쓸쓸함은 때로 비슷해 보인다. 어떤 사람의 얼굴과 몸짓에서 그 감정들을 구별하는 건 어렵다고, 어쩌면 당사자도 그것들을 정확히 분리해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새를 구하겠다고 눈 속에서 빠져나오는 장면. -> 죽음을 생각하던 경하가 새를 살리기 위해 삶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았다.

### \* 경하가 인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희: 처음에는 그저 책 겉 부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친한 사람이기에 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더욱이 이 책을 살펴보니 새를 의미하는 것과 경하가 그 새를 돌보려 가는 장면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했다. 새를 살려달라고 인선이 경하에게 부탁하는 것은 결국 삶의 끝부분에 있던 경하에게 인선은 살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 인선의 생명과 삶에 대한 간절함을 자연스레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빈: 인선의 이야기를 어렵듯이 알아 빛을 진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 '죽음'이라는 단어도 마음에 크게 걸리지 않았을까.

### \* 소설 속에서 '새'와 '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희: 새와 눈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새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명, 눈은 그 상황을 재현해 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눈이 내리면서 경하는 제주도에 있었던 상황을 떠올리기도 하고 제주도로 떠난 이유도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둘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새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있기를 바라고, 잘 수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눈은 인선의 어머니의 꿈과 기억 속에서 나타난다. 경하가 새를 묻을 때도 인선의 어머니는 등장한다. 인선의 어머니(유가족)와 인선(현재)을 잇는 매개체로 그들의 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빈: 새가 꼭 사람 같았다. 너무 연약하고 말을 하며 무언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 눈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눈이 순환하며, 과거의 새, 죽은 새, 그림자만 남은 새를 만나게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 \* 경하는 왜 제주도에 와서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희: 어쩌면 새를 찾아간 제주도에는 가장 죽음과도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을지로 모른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면서, 관련해 영상도 만든 적이 있는 경하는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고 느끼면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을거라 생각한다.

\*정: 경하는 길고 고단한 여정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손에 쥐었으나, 아마에게 도달하고 허무함을 느껴 죽음에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까.

\*빈: 제주도는 정말 죽음으로 가득했던 땅이었다. 그런데 아마를 구하기 위해 집으로 향하며, 결국 그곳에 도착하며- 삶의 이유, 반대로 죽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곳에서의 과업을 마치면 정말 삶의 이유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고 느꼈을 것 같았다.

**\* 작품 내에서 순환의 이미지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희: 기억인 것 같다. 기억은 들고 돌아 말로도 전달될 수도 있다. 인선의 어머니가 겪었던 사건은 인선에게 말로 기억이 전달되고 인선은 이러한 이야기를 경하에게도 들려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건을 잊지 않고 순환하는 기억이 있다면 더 이상 4.3 사건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책의 제목인 작별하지 않는다 와도 알맞기에 더욱이 기억이란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정: 고통인 것 같다. 인선이 겪는 신체적 고통, 경하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인선의 어머니가 겪는 심리적 고통 등 모든 인물들의 고통이 순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잊지 않도록, 작별하지 않도록 상기시킨다.

\*빈: 물이 대표적인 것 같다. 눈을 통해 과거에 내렸던 눈과 현재 내리는 눈이 같은 것이 아닐지 추측하는 것이 와닿았다. 계속 반복되어 차갑게 우리를 건드리며 과거로 인해 현재가 만들어진다는 것, 역사와 현재가 닿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아닐까...

**활동 결과**

처음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 소설이다 보니, 각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겹칠 줄 알았는데 많고, 또 다양해서 놀랐다. 소설을 읽으면서 어렵다는 말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보니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다. 각자가 인상 깊게 본 장면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재미있었다. 확실히 책을 이해하려는 느낌의 질문을 많이 주고받아서, 남은 분량은 더욱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책이 문학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에 각자 해석이 달라서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인상 깊었던 것 같다.

**활동 자료**



책담구대 1-2회차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들어가기>

- 책의 첫인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 인상깊었던 구절이나 장면과 이유를 말해주세요!

<발제문>

- 경하가 인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소설 속에서 '새'와 '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경하는 왜 제주도에 와서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 작품 내에서 순환의 이미지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2)

북클럽 팀명	책담구대					
일시/장소	일시	10월 22일 수요일, 18:00~ 20:00		장소	씨스퀘어 Tangerine Orange 룸	
참여 인원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김*희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정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빈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박*빈 (서명)	
도서	도서명	작별하지 않는다			저자	한강
	출판사	문학동네	출판연도	2021.09.09	번역자	
오늘의 북클럽 주제	소외된 과거의 역사와 소설로의 재현					
<b>활동 내용 &amp; 방법</b>						
<p>『작별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역사를 재현한 소설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인 한강을 통해 계속해서 잊히고 있던 역사가 다시 주목받았다. 그렇게 소외된 과거의 역사를 소설로 재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과연 우리는 그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도 생각하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했다. 또한 소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정리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각자 이야기해 보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하며, 책 속의 작별과 나의 작별을 연결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해당 파일은 실제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조금 더 다듬어 작성하였다.</p>						
<p><b>*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장면과 이유를 말해주세요!</b></p>						
<p>*희: 192p. 우리 프로젝트 말이야. 미소 띤 얼굴로 나를 돌아보며 그녀는 주전자에 생수를 부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제목을 묻지 않았어. 나는 대답했다. 작별하지 않는다.          -&gt; 책의 제목이 문장으로 나오는 것은 책에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 문장 또한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제목이 쓰여진 이유를 말하고 있다. 경하와 인선이 만드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프로젝트는 어쩌면 사람들에게서 흑평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누군가는 해야 할 그런 일이라 생각되기에 인상 깊었던 것 같다.</p>						
<p>*정: 290p. 생존자란 말이 총무의 입술에서 떨어진 순간 모두 침묵했다고 했어.          -&gt; 살아있기를 바라는 유족들 모두의 간절한 그 마음이 한 문장으로 온전히 전해졌다. 하필 추정된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 더 슬펐다. 한 사람이길 그 한 사람이길 하며 유족들은 더 오랜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p>						
<p>291p. 그런 지옥에서 살아난 뒤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gt; 살아 돌아오더라도 뇌리에 박혀 이전의 평범했던 삶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생긴 변화는 앞으로의 삶 전 반을 짓누를 것이다. 만약 나라면 안도감 보다는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으로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다.</p>						

\*빈: 194p. 인선이 혼으로 찾아왔다면 나는 살아 있고, 인선이 살아 있다면 내가 혼으로 찾아온 것일 텐데. 이 뜨거움이 동시에 우리 몸 속에 번질 수 있다.

-> 죽음의 이미지와 삶의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신기했다. 그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가 만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220p. 무엇을 절멸해?

-> '빨갱이'를 절멸하기 위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맞는가. 절멸이라는 이름 앞에 합리화 된 폭력이 공포스러웠다...

#### \* 4.3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책에서는 해당 사건을 어떻게 다룬다고 느꼈나요?

\*희: 4.3 사건은 우리의 교과서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이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찾아봐야지 나오는 사건이고 그렇기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책에서는 등장인물이 직접 겪는 것은 나오지 않고 인선의 어머니의 기억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재 느끼는 4.3 사건에 대한 이해를 증폭시킨다고 느꼈다.

\*정: 얼핏 교과서에서 글로 본 것 같다.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고, 사실 책을 읽기 전에는 4.3 사건에 대해 거의 무지했다. 책에서는 인물의 과거로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어 전개된다. 과거와 현재, 두 시점으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빈: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것을 안다고 착각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저 숫자와 이름으로 알고 있었지, 그 속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선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책에서는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다가왔다. 개인의 이미지를 상상하니 더 크게 다가온 느낌이었다.

#### \* 책의 제목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희: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어쩌면 작별하지 않아야 한다. 와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4.3 사건은 잊혀지거나 작별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이며 기억이 필수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 자신의 포부를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도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의미겠지만 작별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문구가 이 책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의미인 것 같았다.

\*정: 산 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며 과거에 저항하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빈: 과오의 역사와 작별할 수 없고, 작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다... 경하가 삶과 작별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 \* 본인이 작별에 대해 말해봅시다. 좋았던 작별이나 후회되는 작별이 있나요?

\*희: 좋았던 작별은 역시 상호동의간의 합의된 작별이었던 것 같다. 서로에게 맞지 않아 합의하에 멀어지는 것은 상대와 나에게도 모두 좋았던 것 같고 아픔도 없었던 것 같다. 반면에 후회하는 작별은 일방적인 이별이었던 것 같다. 내가 이별당하는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당하는 작별은 슬프고 괴롭고 짜증만 났던 것 같다.

\*정: 나에게 좋았던 작별은 뚜렷하지 않아도 다음을 기약하는 작별이다. 그 외에는 모두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거나 모종의 이유로 작별하였다. 끝맺음을 확고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왔던 작별들이 후회된다.

\*빈: 끝이 정해져 있는 모임이나 일에서, 아쉬우면서 기쁜 마음이 들며 헤어질 때가 좋은 작별이었던 것 같다. 후회하는 작별은 서서히 멀어진 관계들이다. 특히 내가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후회스럽다.

**\* 소외됐던 과거의 역사를 소설로 재현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희: 다시금 현대 사람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이란 현대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면서 여운을 깊게 남겨줄 수 있다. 그렇기에 과거의 잊혀진 사건들을 소설로 재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남겨줄 수 있다고 본다.

\*정: 사건 자체를 다시 알리고 경각심을 준다는 점도 있지만, 그 희생 이면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빈: 끊임없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해주는 존재라고 느껴진다. 사람들은 가끔 어떤 슬픔에 유효기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곤 하는데, 소설로 만들어진 역사는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아파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며 상흔을 남겨주는 것 같다.

**\* 본인이 그린 그림을 설명해주세요!**

\*희: 제주도에 몰아치는 피파도를 통해서 제주도에 있었던 사건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파도의 끝에는 새인 '아마'를 등장시켜 삶을 가지고 있던 이에게도 피파도가 덮쳐질 수 있던 것을 의미했다. 지우개를 등장시킨 이유는 점점 잊혀져가는 사건을 표현하고자 넣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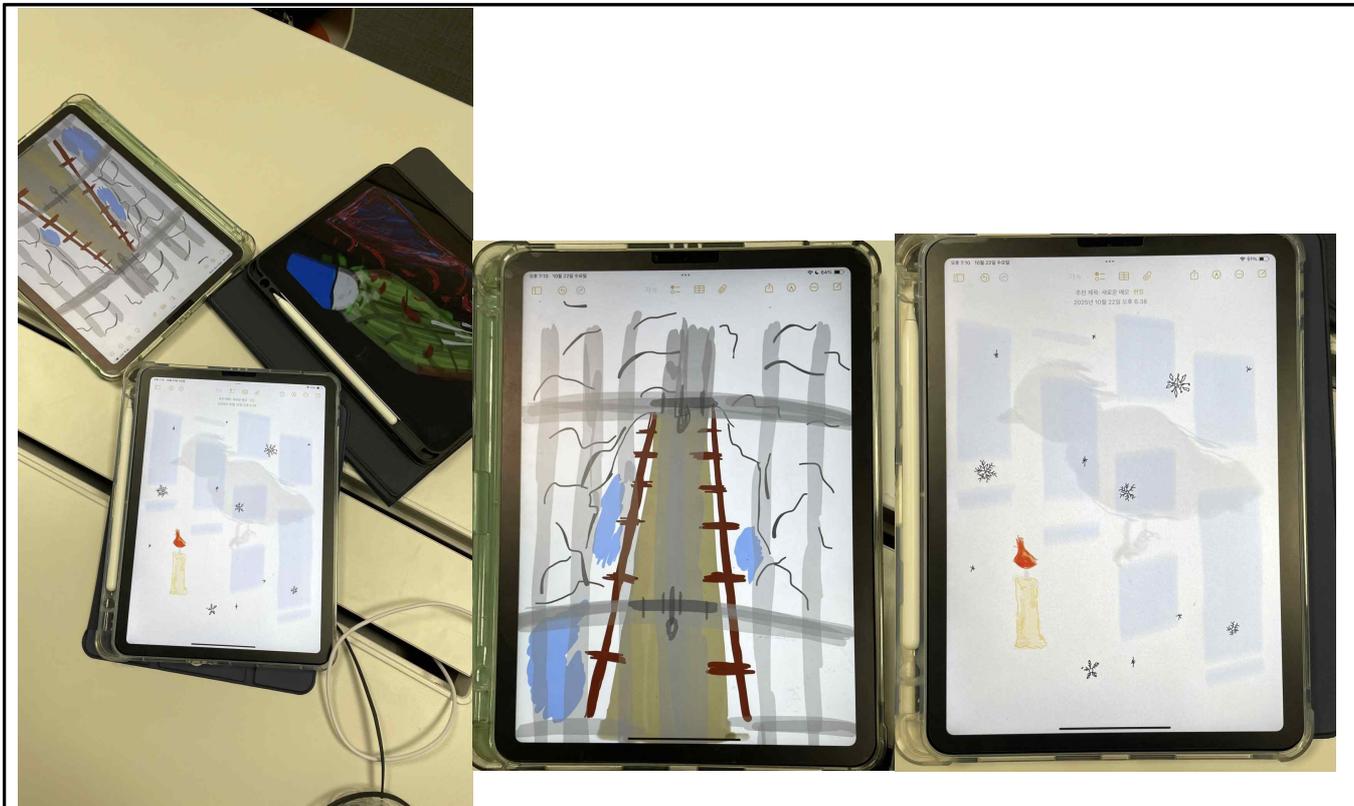
\*정: 수많은 희생, 유해들이 묻혀있는 경산 코발트 광산을 그렸다. 이곳엔 지금도 삼천 구 이상이 갭도에 수습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한다. 광산 안과 밖의 경계에 갇혀 그 속에 아직도 묻혀있을, 그 희생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그려보았다.

\*빈: 촛불 뒤로 일렁거리는 아마의 그림자를 그렸다. 아마와 사람이 겹쳐 보였으면 했다. 과거로부터 계속 존재하며 무언가를 감싸 안는 것 같은 막과 함께 검은색 눈으로 슬픔을 표현했다.

**활동 결과**

책에 대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설을 읽고 대화하며 서로의 생각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고 서로의 그림을 살펴보면 상대가 어떻게 소설을 느꼈는지가 더 와닿는 느낌이 들었다. 생각보다 우리도 역사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역사를 소설로 보여준다는 것은 더 깊이, 강렬하게 마음에 새기는 일 같다. 그림은 사람이 생각하는 내면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고도 생각했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 서로 다른 장면과 다른 느낌의 그림이 나와서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다. 작품에 대해 상기하며 이제는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고, 작별하지 못할 것이다.

**활동 자료**



책담구대 1-2회차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발제문>

- 4.3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책에서는 해당 사건을 어떻게 다룬다고 느꼈나요?
- 책의 제목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 본인의 작별에 대해 말해봅시다. 좋았던 작별이나 후회되는 작별이 있나요?

<마무리하기>

- 소외됐던 과거의 역사를 소설로 재현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 책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본인이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3)

북클럽 팀명	책담구대					
일시/장소	일시	10월 29일 수요일, 18:00~ 20:00			장소	씨스퀘어
참여 인원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김*희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정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빈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박*빈 (서명)	
도서	도서명	길에서 만난 세상			저자	박영희
	출판사	우리교육	출판연도	2006. 03. 01.	번역자	번역서인 도서만
오늘의 북클럽 주제	소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b>활동 내용 &amp; 방법</b>						
<p>소외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다채롭고 개인적일까.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작성된 책이기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나누자는 취지로 주제를 선정하였다.</p> <p>소설과 다르게 남은 두 책에서는 인상 깊었던 부분의 질문은 빼기로 했다. 특히 ‘길에서 만난 세상’에서는 모임 전 각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파트를 뽑아 발제문을 만들었다. 미리 받은 발제문을 ppt를 통해 읽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서로의 대화를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최종적인 답변을 생각했다. 해당 파일은 실제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조금 더 다듬어 작성하였다.</p>						
<p><b>*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가 달라지는 외국인 노동자, 노동에도 계급이 있는 걸까요?</b></p>						
<p>*희: 노동에는 계급이 없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차별은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와 실질적으로 비자 차이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에만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 내국인 사이에서도 노동에 계급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도 사실 의사, 변호사 등등 대우를 많이 받는 직업도 있지만 반대로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노동은 없어선 안될 직업들이다. 예를 들어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의사의 병원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필수적이므로 노동에는 계급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p>						
<p>*정: 노동에 계급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에 따라 어느 정도 이들을 대하는 분위기는 형성된다고 생각한다.</p>						
<p>*빈: 정해진 계급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사회가 유지되려면 어떤 직업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다. 특히 한국에서 비자를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체류 자격이 달라지는 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생각이 든다.</p>						

**\*이주노동자는 왜 미등록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희: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는 몸을 쓰는 일에서는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러한 일들을 대신하는 것이 거의 당연시 되어왔고 이런 일들을 하는 외국인들은 거의 미등록 노동자가 많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쉬운 접근성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조치가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절차가 외국인에게 더 친화되어 있다면 미등록 노동자가 많아지는 일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본국에 없거나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것 같다. 또한 낮은 인건비로 인해 미등록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도 한 부분 차지하는 것 같다. 이주노동자 단속은 미등록 노동자를 강제로 추방 혹은 자진 출국하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미등록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인권침해일 수 있다.

\*빈: 최근에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던 중 사망한 여성에 대한 기사를 봤다. 불법 체류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조업 공장에서 일할 수 없는 구직 비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취직에 실패하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라고 했다. 현재의 단속과 추방의 기준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 고용허가제 사업장 93%가 노동법을 위반한다는 기사와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는 기사,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기사가 여전히 반복된다는 게 끔찍하다. 미등록 노동자를 만드는 건 이주노동자의 불법노동이 아니다. 현실에서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탁상행정만 반복하는 국가의 나태함이다.

**\*임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희: 우리는 임신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지만 실질적으로 10개월간 산통을 참아내며 큰 고통을 통해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여성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도 겪어보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는 무지할 텐데 실수로 생긴 애는 더더욱 챙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공감 없는 쾌락으로 인해 미혼모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정: 임신을 하면, 임신부는 신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분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 미혼모가 많은 이유는 남성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을 수 있고,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을 크게 제지할 제도가 없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빈: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임신한 사람은 아이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아는 남성들이 너무 쉽게 아이를 저버리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모성애 신화로 아이를 낳기를 선택하는 여성이 많기도 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현재 미혼모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혼모 인식 개선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희: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혼모들을 위한 전용 센터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미혼모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원해주는 것과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현재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온전히 여자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신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미혼모를 불쾌의 시선이 아닌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 가족상담전화나 양육비 지원 등이 있다. 미혼모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미혼모'라는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미혼모'라는 용어는 결혼을 안 한 것에 치중되어, 사회에서 미완성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이는 낙인이 된다. 따라서 미혼에 집중하기보다 주체적으로 아이를 책임지는 것에 집중하는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

\*빈: 양육 중인 미혼모에 대해 교육지원이나 가족상담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정한 경제적 기준을 가진 미혼모에 한정되어 있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좋지 못한 것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다양한 가족형태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배경을 선불리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

### **\*빈민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가 있나요?**

\*희: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초연금이다.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던가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 요즘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노인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취미비용을 준다던가 행사에 참석하면 주는 마일리지 등등 노인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 교통비, 문화 활동비, 국민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제도가 있다. 이러한 공공요금 지출의 절감은 다른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요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이다. 이동 자체가 불편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와 사회활동을 놓지 않게 해주는 사업이다. 이처럼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또한 일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 편히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도시 속에서 노인은 비가시화 됩니다. 왜 노인혐오는 줄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는 노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 자신은 아직 노인이 되지 않았다는 안일함과 노인들이 가지는 느릿함에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다. 신체적으로 젊음과 노인은 다르게 당연함에도 한국사회는 빠르게 하는 것이 주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빠름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노인들을 경시하게 되고 혐오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대가 지나면서 차별에 관련해 떨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도 있기에 이 또한 한몫 한다고 본다.

\*정: 현재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고, 그 현상이 나타난 이면은 잘 바라보지 않는 것 같다.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며, 그 시선은 좋지 못하다.

\*빈: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기 때문인 것 같다. 경제활동에 있어 평범한 회사라 하면 청년, 중년층으로 이루어진 직원들이 먼저 떠오른다. 젊은 세대들이 사회에서 주로 만나고 소통하는 대상에 노인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능한, 혹은 집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 **활동 결과**

각자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유하며, 생각의 크기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 안타까웠던 점은, 선정한 주제들이 어떤지 현재의 담론과도 멀지 않다는 것이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야겠다는 각자의

다짐을 하였다. 이 책이 나온 년도가 우리가 태어나던 년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외에 대한 문제에 아직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큰 문제로 나와 있다. 2006년의 시기에는 이런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현재는 더 많은 소외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남에게 따뜻한 관심을 별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년 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더 이상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활동 자료



책담구대 3-4회차  
**길에서 만난 세상**  
 박영희 외

<발제문>- 빈민 노인

- 빈민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가 있나요?
- 도시 속에서 노인은 비가시화 됩니다. 왜 노인혐오는 줄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는 노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발제문>- 미혼모

- 임신은 혼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현재 미혼모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혼모 인식 개선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발제문>- 미등록 노동자

-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가 달라지는 외국인 노동자, 노동에도 계급이 있는 걸까요?
- 이주노동자는 왜 미등록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4)

북클럽 팀명	책담구대					
일시/장소	일시	11월 5일 수요일, 18:00~ 20:00			장소	씨스퀘어 Tangerine Orange 룸
참여 인원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김*희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정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빈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박*빈 (서명)	
도서	도서명	길에서 만난 세상			저자	박영희
	출판사	우리교육	출판연도	2006. 03. 01.	번역자	번역서인 도서만
오늘의 북클럽 주제	과거의 소외와 현재의 소외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우리는 과거로부터 얼마만큼 나아갔을까? 과연 과거로부터 독립될 수는 있을까? 2006년에 발간된 책이니만큼, 과거의 소외의 이야기를 보고, 현재는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생각해보기로 하며 주제를 선정했다. 3회차의 모임과 같이, 모임 전 각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파트를 뽑아 발제문을 만들었다. 모임에서는 미리 받은 발제문을 ppt를 통해 읽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서로의 대화를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최종적인 답변을 생각했다. 해당 파일은 실제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조금 더 다듬어 작성하였다.</p> <p><b>*국가보안법을 기준으로 한 과거의 보호관찰법과 현재의 보호관찰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b></p> <p>*희: 과거에는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들도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 다시 가두지 못하고 관찰하며 감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렇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곁에 있을 가능성은 현재 더 높아졌으면 재범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p> <p>*정: 보호관찰법을 제정했을 당시에는 단순 감시의 목적으로 행해졌던 것 같다. 지금은 국가정보법령센터에 따르면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의 활동을 같이 전개한다고 한다.</p> <p>*빈: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을 기준으로 정치범들을 감시하는 목적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현재는 미성년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p> <p><b>*그렇다면 현재 폭넓게 시행되는 보호관찰법도 개정이 필요할까요?</b></p> <p>*희: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이더라도 현재 형의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시 피해를 받는 것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주거제한</p>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거제한은 범죄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지만 이미 남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굳이 인권을 지켜 줘야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진다.

\*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를 위해 범죄자들을 재범 가능성에 따라 분류한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특정 시간에만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많은 제한을 뒤야한다.

\*빈: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대상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보호관찰관 한 명당 50명이 넘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아닌, 소수의 인원과 더 많이 소통하며 사회적응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까요?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과 대한민국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른 시선에 대해 말해봅시다. (한국에 오면 자신의 문화를 다 버려야 할까요?)**

\*희: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들을 비난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자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외국으로 온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 그 나라의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쉽게 사기를 칠 수 있다 생각해 은근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 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동화주의 성향이 강해서 자신들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화 압력을 하며 차별을 가하는 것 같다. 나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샐러드 볼 이론과 같이 각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큰 틀에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빈: 잘 이해하진 못하겠으나..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보거나 돈을 가져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반면 서구권의 나라로 일을 하러 가는 자국민은 성공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 같다. 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은근한 인종차별의 시선이 있기 때문 아닐까. 또한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버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과거와 비교해 인종차별이 줄었다고 생각하나요?**

\*희: 한국인의 인종차별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된 것도 분명하고 하면 안된다는 인식도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종차별을 개그의 요소로 잡는 밈도 많아짐에 따라서 장난식의 인종차별은 확실히 예전보다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 인식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정책을 도입하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요즘 오히려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보니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공감하기가 더 쉬워졌다. 그로 인해 확증편향이 쉽게 나타나고, 온라인 상에서는 제노포비아적 인식을 만연하게 볼 수 있다.

\*빈: 물론 외국인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는 점에는 외국인에 익숙해진 것 같긴 하다. 그러나 인종차별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차별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다. 특히 중국인, 동남아시아 인구에 대한 혐오가 전보다 많이 심화되고 일상화 되었다고 느낀다.

**\*열악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희: 열악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라도 기피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그 직업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의 계급을 없애고 모두가 가치 있는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 법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열악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떠들썩했던 한 기사 속 특정 유명 회사의 행태에 큰 충격을 받았었다. 우리가 모르는,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은 비보가 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일의 강도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빈: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더욱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다.

**\*현재 사회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경쓰고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희: 현재 복지사들은 야간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챙겨야 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복지를 실행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취급도 열악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 요양보호사, 복지사, 교도관 등 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이들은 감정 노동과 위험 노출이 높고,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그러므로 심리 상담이나 치료에 관한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빈: 뭐든지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빈 부분을 메워가고 앞서 나가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실적 채우기 용이 아닌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의 소외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아갔을까요?**

\*희: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소외에 대해서 발전을 했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엄연히 차별이 남아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그들을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들어 내어 다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 우리는 소외에서 더 나아갔다. 과거에는 가려지고 소외된 이들이 미디어에 나오고, 또 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쓰인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소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소외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빈: 책을 읽으며, 분명히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거대한 사건의 조그마한 부분이 변화되고 있을 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소외의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느껴졌다. 특히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노인, 미혼모, 종교 등 비슷한 문제가 현재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조그만 부분들이 바뀌고 바뀌

어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믿어본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소외된 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희: 소외된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 번이라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들의 고통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에는 소외된 이들이 더 이상 소외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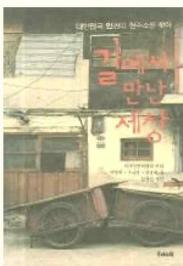
\*정: 사회의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외는 개인적인 문제보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외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발전시키는 예방책이라고 생각한다.

\*빈: 어떤 소외가 꼭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소외라는 건 어딘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타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를 찾고, 더 깊이 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쓴다는 것은 어떤 소외가 사라져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

**활동 결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가며 우리는 얼마나 나아갔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토론했다. 2006년에 발간된 책이라 아주 예상치 못한 소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도 현재와 비슷했다.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건 서글펐다. 그러나 바뀐 것과 나아진 것은 분명히 존재했다.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앞으로의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드는 시간이었다. 남녀노소, 국적 등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소외를 알리는 책이라는 점에서도 뜻깊었다. 현재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나 바뀌어야 할 것들을 얘기하다보니 생각보다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동의한다면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제도에 대해 얘기를 하니 현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 현재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활동 자료**



책담구대 3-4회차  
**길에서 만난 세상**  
박영희 외

**<발제문>-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을 기준으로 한 과거의 보호관찰법과 현재의 보호관찰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 그렇다면 현재 폭넓게 시행되는 보호관찰법도 개정이 필요할까요?

<발제문>- 인종차별

- 우리는 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까요?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과 대한민국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른 시선에 대해 말해봅시다. (한국에 오면 자신의 문화를 다 버려야 할까요?)
- 한국인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과거와 비교해 인종차별이 줄었다고 생각하나요?

<발제문>- 0.3평의 노동

- 열악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 현재 사회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경쓰고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마무리하기>

- 과거의 소외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아갔을까요?
- 소외된 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5)

북클럽 팀명	책담구대					
일시/장소	일시	11월 12일 수요일, 18:00~ 20:00			장소	씨스퀘어
참여 인원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김*희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정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빈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박*빈 (서명)	
도서	도서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	김원영
	출판사	사계절	출판연도	2018. 06. 15.	번역자	번역서인 도서만
오늘의 북클럽 주제	장애를 대하는 나의 태도 알아보기					
<b>활동 내용 &amp; 방법</b>						
<p>우리는 장애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해 보았을까? 당장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끼며 고민을 하려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장애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니 만큼, 장애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주제로 삼고 관련된 발제문을 받았다. 각 장마다 장애에 대한 담론을 펼쳐게 해주는 주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참고했다.</p> <p>미리 받은 발제문을 ppt를 통해 읽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서로의 대화를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최종적인 답변을 생각했다. 해당 파일은 실제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조금 더 다듬어 작성하였다.</p> <p><b>*피해자, 특히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말해봅시다. 그것은 피해자를 ‘기호화’하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b></p> <p><b>*희:</b>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피해를 당했을 시 나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1이라는 기호화는 피해자를 그저 피해자로 취급하는 느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기호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p> <p><b>*정:</b>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그 삶은 보려하지 않고 그저 장애에만 집중한다. 피해자를 기호화하고 추상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들었다. ‘한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생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인가’ ‘피해자를 가시화하는 것은 그들이 원한 것일까’ 기호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집중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으며, 사건 본질을 흐릴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범의자에게 집중을 한다면, 그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깨닫고 범의의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p> <p><b>*빈:</b> 작가의 이야기에는 충분히 공감했다. 그저 장애인을 죽였다는 기사는 피해자가 가진 특성을 ‘장애’ 하나로 축소시킨다. 하지만 그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명하는 것은 장애 앞에 사람이 존재하는 느낌이다. 그러나 신상에 관해서는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또한 책 속의 사례에서 장애인이 기호화된 것은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시설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 앞에 장애를 두어 기호</p>						

화하기 때문에 시설 속에서 죽은 장애인 또한 기호화된 형태로 소개되는 것 아닐까.

**\*임신했을 때 자신의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이유와 함께 말해주세요.**

\*희: 내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나는 낙태를 결심할 것 같다. 나중에 태어난 아이에게 사회적 시선을 주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직접 케어 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생명은 모두 고귀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고귀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만약 그게 내 일로 온다면 아직 받아들일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에 아직까진 이런 선택을 유지할 것 같다.

\*정: 임신했을 때 이를 알고 준비한다고 해도 장애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고, 장애에 대해 무지한 나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모두가 각자의 취약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 부분을 가족이 서로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내가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 같다.

\*빈: 사실 내가 잘 키울 자신이 없다. 나도 임신중절을 택할 것 같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안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며 아이와 내가 받게 될 상처가 걱정된다.

**\*책 속에서는 ‘잘못된 삶 소송’이 소개됩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장애아가 나온다면 기소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출생이란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희: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장애아가 태어나고 생기는 비용과 다른 상황들을 예상치 못한 채 출산을 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원치 않았던 것을 안게 된 사람들은 당황할 테고 이를 알 수 있었던 의사에게 기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소를 하게 된다면 이미 태어난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아이와 부모를 선택하라고 하면 부모를 선택할 것이기에 이러한 선택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 아이를 낳고, 안 낳는지에 관하여는 보호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호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것은 의사의 잘못이다. 따라서 이는 의사의 오진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장애아가 태어나는 것이 잘못된 출생이라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이다.

\*빈: 장애 여부가 중요했던 보호자라면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잘못된 출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출생이 잘못 되었다고 규정하면 그 어떤 출생도 적합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책 속에서는 레즈비언 농인 부부가 청각장애를 가진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한 일을 소개합니다. 장애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당한 일일까요?**

\*희: 장애를 선택한다는 것은 부모들의 선택이지만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원망의 시선을 바라보는 상황정도는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한 부모하면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지닐 힘든 상황들은 부모들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나는 그럴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 처음 이 질문을 보고 아이의 장애를 부부가 선택한다는 것에서 개입이 있는 것에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책에 소개된 부부의 사연을 통해 내가 장애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 완전히 정당하고, 완전히 정당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다. 경험이 있는 농인부부가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한 거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빈: 임신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장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것 같다. 특히 책 속의 사례에서는 농인 문화가 존재하고, 그 문화에서 함께 살아갈 아이를 바랐기 때문에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못생긴 표정을 짓겠다며 얼굴을 구기는 것이 장애 혐오와 관련이 있을까요?**

\*희: 우리가 생각하는 못생김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얼굴 구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비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저 얼굴을 꾸기면 못생겨지겠지 라고 생각한 행동이 장애인들을 닮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봤지만 만약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시 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 흔히 볼 수 있는 ‘얼굴 몰아주기’에 대해 단순히 재밌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망가짐으로써 빛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굴을 구기고, 예쁜 표정을 짓는 그 차이를 보고 웃는 것은 외모를 기준 짓고 특정 외모를 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빈: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못생긴 얼굴’이라는 것이 장애인의 얼굴과 일부 닮아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꼭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특정한 모습을 못생겼다고 정의하고 그 이미지를 따라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활동 결과**

장애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실제 가까이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를 나의 일로, 일상 속의 일로 대입하여 생각하는 일이 새롭게 다가왔다. 특히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장애로 확장되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스스로의 모순됨과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담론이 많았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더 넓은 생각을 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져서 기뻐다. 우리가 직접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 그게 장애인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일이기도 하고 직접 다가오니 현실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정말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별 것도 아니고 생각해볼 거리도 아닌 것이 장애인들에게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고 이러한 사소한 관심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활동 자료**



책담구대 5-6회차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발제문>

- 책 속에서는 레즈비언 농인 부부가 청각장애를 가진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한 일을 소개합니다. 장애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당한 일일까요?
- 못생긴 표정을 짓겠다며 얼굴을 구기는 것이 장애 혐오와 관련이 있을까요?

<발제문>

- 피해자, 특히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말해 봅시다. 그것은 피해자를 '기호화'하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 임신했을 때 자신의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이유와 함께 말해주세요.
- 책 속에서는 '잘못된 삶 소송'이 소개됩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장애아가 나온다면 기소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출생이란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6)

북클럽 팀명	책탐구대					
일시/장소	일시	11월 19일 수요일, 18:00~ 20:00			장소	씨스퀘어 Tangerine Orange 룸
참여 인원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김*희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정
	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번	2025****	이름	박*빈
	참석인원(명)	3/3		참가자 대표	박*빈 (서명)	
도서	도서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	김원영
	출판사	사계절	출판연도	2018. 06. 15.	번역자	번역서인 도서만
오늘의 북클럽 주제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					
활동 내용 & 방법						
<p>우리는 사회 속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얼마나 마주할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이동의 제약, 출입의 제약,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주제로 잡고, 장애를 가진 몸을 욕망하는 것, 장애인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했다.</p> <p>미리 받은 발제문을 ppt를 통해 읽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서로의 대화를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최종적인 답변을 생각했다. 해당 파일은 실제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조금 더 다듬어 작성하였다.</p> <p><b>*책 속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욕망을 느끼는 디보티즘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상형이 존재합니다. 그 이상형에 왜 장애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b></p> <p>*희: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장애는 불편한 것,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있기에 이를 성애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시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 <p>*정: 장애를 바라보는 그 무지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의 불편한 점만 보는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다.</p> <p>*빈: 장애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좋은 것, 장애는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책 속에서 말하듯이, 이상형을 사랑에 빠지기 쉽게 해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떤 장애도 충분히 그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b>*책 속에선 장애인의 이동권, 오줌권을 이야기 하며 사회가 강제하지 않음에도 차별받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런 일들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b></p> <p>*희: 가게를 올라갈 때 계단이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다. 계단이 있다는 것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아닐지 몰라도 휠체어를 끄는 사람 입장에서 가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 비슷한</p>						

예로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다.

\*정: 오래 전에 한 뉴스를 보았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시청에서 불법이라며 철거하라고 통보하였다.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접근권의 입장에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빈: 노동의 분야가 특히 그런 것 같다. 직업적인 인식이 특정한 신체, 성별에 한정되어 있게 되면 그 외의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들고, 들어가더라도 차별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책 속에서 소개된 소방관 같은 직업, 군인, 모델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같다.

**\*활동지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는 활동지원 심사를 하며, 대상자에게 라면을 끓일 줄 아냐고 묻는 것을 지적합니다. 활동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희: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에는 의식주가 모두 생활이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나의 의지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입을 수 있으며 집을 고를 수 있어야한다. 나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정: 문화생활 영위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함께 교류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빈: 인간다운 삶에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만일 삼시세끼 라면만 끓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옷을 입을 수는 있어도 입고 싶은 옷, 넥타이나 원피스를 스스로 입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충분히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희: 솔직히 말해서 장애가 나의 가까이에 있던 적은 없어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사회에서 마주치는 장애인들을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이 살기엔 너무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장애인들이 사회에 더 나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정: 다름과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세상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상대적 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함께 살아보아야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더 잘 맞출 수 있지 않을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장애인이 장애를 연기하는 크리핑 업을 멈추고 실제 장애를 가진 배우를 캐스팅해야 한다고 느낀다. 또한 그들이 현실에서도 잘 살 수 있게 인식 교육과 건물, 이동 수단에서의 배리어 프리가 폭넓게 필요하다.

**\*책에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직접 '실격당한' 존재를 변론합니다. 소수자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그렇게 자신과 타인을 변론할 장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희: 소수자는 소수자로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표방하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더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소수자들이 숨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 당사자가 직접 변론하는 것은 소수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다른 소수자들에게 용기를 북돋는다. 모든 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길 바라며 소외가 줄어든 세상을 꿈꾼다.

\*빈: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던 소외된 존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사회가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다른 소수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변론장이 점점 커져 더 이상 목소리를 내는 일이 별난 일이 아니게 되는 것 같다.

#### 활동 결과

6회차를 끝으로 모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소외된 자들이 사라진, 역사마저 소외되던 소설에서 소외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외되었던 이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이는 이야기까지 아주 멀고도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했다. 타인이 대변하는 삶도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순간 서로를 인식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외는 얼마나 간편하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얼마나 쉽게 부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모든 소외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활동 자료



책팀구대 5-6회차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 <발제문>

-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욕망을 느끼는 디보티즘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상형이 존재합니다. 그 이상형에 왜 장애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 책 속에선 장애인의 이동권, 오줌권을 이야기 하며 사회가 강제하지 않음에도 차별받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런 일 들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 <발제문>

- 활동지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는 활동지원 심사를 하며, 대상자에게 라면을 끓일 줄 아냐고 묻는 것을 지적합니다. 활동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마무리하기>

- 책에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직접 '실격당한' 존재를 변론합니다. 소수자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그렇게 자신과 타인을 변론할 장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봅시다.